

2026. 2. 11.(수) 조간 (온라인 보도) 2026. 2. 10.(화) 12:00

“설 연휴, 도로 위 ‘살얼음’·머리 위 ‘고드름’ 주의보”

- 소방청, 귀성길 ‘노면 살얼음(블랙아이스)’ 교통사고 및 해빙기 낙하물 사고 주의 당부
- 지난 설 연휴 교통사고 구조 829건… 평년 대비 60% 이상 급증, 감속 운행 필수
- ‘고드름’ 제거 출동 지난해 2천 건 육박… 건물 외벽·처마 밑 통행 시 살펴야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연휴를 맞아, 귀성·귀경길 도로 위 ‘노면 살얼음(블랙아이스)’ 과 해빙기 건물 외벽의 ‘고드름’ 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은 연휴 기간 차량 이동량이 급증하는 데다, 최근 기온 변동폭이 커지면서 도로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노면 살얼음(블랙아이스)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교통사고) 실제로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의 교통사고 구조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설 연휴에 교통사고 구조 건수가 829건으로 전년 493건 대비 약 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설 연휴 교통사고 구조활동 현황

구분	2023년(1.21~1.24)	2024년(2.9~2.12)	2025년(1.25~1.30)
구조건수(건)	532	493	829
구조인원(명)	181	138	331

특히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노면 살얼음(블랙아이스)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연쇄 추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소방청은 노면 살얼음(블랙아이스) 구간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귀성길 운전 시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삼가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결빙에 취약한 교량 위, 터널 출입부, 그늘진 도로 등을 지날 때는 미끄럼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한다.

(고드름 사고) 또한, 낮과 밤의 기온 차로 얼음이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며 생기는 ‘고드름’ 안전사고도 주의가 필요하다. 고층 건물이나 주택 처마에 매달린 고드름은 추락 시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 겨울철 고드름 제거 출동 건수는 2,044건에 달해 2024년(991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 최근 3년간 고드름제거 처리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고드름 제거 건수(건)	2,134	991	2,044

소방청은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외벽 상태를 확인하여 위험한 고드름을 사전에 제거하고, 보행자는 건물 가장자리 통행을 피하거나 머리 위를 살피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만약 직접 제거가 어렵거나 위험한 경우 무리하게 작업을 시도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설 명절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소방청은 연휴 기간 빈틈없는 24시간 구조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구조과	책임자	과 장 박 현 (044-205-7610)
		담당자	소방위 김경세 (044-205-7618)